

#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님(진실화해위원회 담당)

발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외입양 인권침해 신청 입양인 단체

문의: 한분영(Han Boon Young) 010-3903-8044 / [dkrg@danishkorean.kr](mailto:dkrg@danishkorean.kr)

관련 홈페이지: <https://koroot.online/TRC>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입양인의 진실규명 촉구를 위한

## 국제 입양인단체 집회

-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진실·화해위원회 앞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 주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 입양인 단체
- 참여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인권침해 조사 신청 해외입양인 단체 및 개인, 국제 해외입양인 인권단체 및 전문가 등

## WE STAND UNITED



### <요구 사항>

첫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신청한 총 367명의 입양인 모두가 진실규명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임기 내에 남은 311명에 대한 결론과 진실규명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판단에 있어 서류와 배경 정보의 부족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인의 현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셋째, 현재 진실화해위원회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연속적 조사와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

## WE STAND UNITED



1. 2022년 미국,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11개국 367명의 한국 해외입양인은 과거 자신들의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출생국인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였다.
2.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3월 26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5일 제102차 위원회를 통해 해당 안건 신청자 367명 가운데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 발표를 통해 입양알선기관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적법한 입양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국가는 모든 입양 과정을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함으로써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였음이 밝혀졌다. 이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등을 권고했다.
3.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입양인 신청자 367명에 대한 2년 반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56건의 사례만이 결론지어졌으며, 311명의 입양인들은 여전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해외입양인 신청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발표에서도 국가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허위 및 조작된 서류를 기반으로 입양되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은 자신의 진정한 배경과 출신에 대한 매우 적은 정보나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4. 2025년 3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 제102차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보 부족이나 부재를 이유로 98명의 심의 대상 입양인 가운데 42명을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자신들이 겪은 기록의 부재와 조작, 훼손으로

가족을 찾지 못하고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한 입양인에게 침해의 원인이라고 할 정보 부족을 이유로 ‘진실규명’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한 모순된 결정이다.

오늘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입양인의 진실규명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조사 신청 입양인 단체 및 개인, 국제 해외입양인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의 확인과 진실화해위의 이행을 요구한다.

서류와 배경 정보의 부족 자체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다!

입양인들이 합법적으로 입양 시스템에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의 부재는 그 자체로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다. 이것을 입양인들의 문제로 만들지 말라!

자신의 입양의 합법성을 증명할 책임은 입양인이 아니라 입양알선기관과 한국 국가에 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며, 관련 국제법의 원칙이다!

모든 **367**명의 입양인 신청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충실한 조사와 이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대해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367**명의 입양인 신청자는 자신의 입양과정에 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실화해위원회는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총 **367**명의 입양인 모두가 충실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자신들의 진실규명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임기 내에 남은 **311**명에 대한 결론과 진실규명 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판단에 있어 서류와 배경 정보의 부족 자체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양인의 현실에 귀 기울이고 진실규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모든 신청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 결과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통해 이에 대한 연속적 조사와 답변이 이뤄져야 한다.

해당 언론사의 진실화해위원회 담당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https://youtu.be/b9mdQKANVYs>

### 덴마크 한국인 권리 단체(DKRG)

는 홀트아동복지회와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입양된 여러 입양인들을 대표하여 최초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한 인권 단체입니다. 우리는 3월 26일 위원회의 부분적 결정에서 모든 사례에서 인권과 대한민국 헌법이 위반되었다는 결론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311건의 사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떠한 사례도 결정 없이 기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모든 367건의 개별 사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입양인들이 입증 책임을 져서는 안 됩니다!
- 입양인들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는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우리에게 진실을 숨기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위해, 모든 367건의 사례가 조사되고 결정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난 2년 7개월 동안의 위원회의 작업이 완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는 우리의 권리에 대한 또 다른 침해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덴마크 한국인 권리 단체를 대표하여 법학 석사 안야 케어 콜드.

덴마크 의회 의원이자 2024년 가을 한국의 입양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의원단의 단장인 카트리네 다우가르드 의원이 이 성명을 지지합니다.

"제 이름은 카트리네 다우가르드입니다. 저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덴마크 의회 의원입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합니다. 여러분이 약속하신 중요한 작업을 완수하여, 현재 검토 중인 거의 400건의 모든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보장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마무리하여 덴마크 당국이 우리 측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덴마크의 주요 입양 문제 전문 변호사인 클라우스 요세프센의 성명:

<https://youtu.be/NZZIAIOMIWU>

"제 이름은 클라우스 요세프센입니다. 저는 오르후스 대학교에서 행정법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입양 분야, 특히 한국에서의 입양에 깊이 관여해 왔습니다.

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작업을 지켜보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중간 보고서를 통해 367건의 사례 중 56건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검토되었으며, 해당 입양에 관련된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들이 기각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모든 사례가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가 진실을 밝히고 화해를 도모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스 요세프센은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행정법 외부 강사이자 실무 변호사입니다.

<https://youtu.be/P9dmWTD5Bg>

# 모든 입양인에게 진실을, 그리고 화해를 Truth for All Adoptees, then Reconciliation





호주-미국 한국인권그룹(AUSKRG) 성명서

2025년 4월 6일 AUSKRG 영상 성명 <https://youtu.be/sjUUWzqdBPo>

대표: 라이언 구스타프슨, 제시카 월튼, 하나 크리스프, 체 스티븐슨, 알리시아 외

호주-미국 한국인권그룹(AUSKRG)은 진실과화해위원회(TRC)의 중간 조사 결과를 주의 깊게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가 해외 입양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프로그램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입양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입양인들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7개월에 걸친 긴 조사와 기다림 끝에, 현재까지 367건 중 단 56건만이 종결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모든 신청자들은 자신의 입양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며, 이 다년간의 조사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 자원을 들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주 멜버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으며, 시드니와 뉴캐슬, 서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 중인 AUSKRG 회원들과 지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화해위원회가 남아 있는 311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결론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AUSKRG는 문서 미비 자체가 중대한 권리 침해임을 위원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판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양 절차의 합법성과 그에 대한 문서를 제공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와 당국에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입양인이 아니라 국가에 있습니다.

AUSKRG는 전 세계 입양인 공동체 및 다른 한국인권단체들과 연대하며, 진실 규명 절차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화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Critical Adoptees Front Europe

# CAFE

**CAFE – 유럽 비판적 입양인 연대 성명서** <https://youtu.be/hpLi1ZdEFIs>

저희는 한국에서 벨기에로 입양된 한국인 입양인 17명 중 3명이며, 한국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한국 해외입양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당사자들입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전 세계에서 입양된 한국인 입양인들이 제출한 367건의 모든 사건을 5월 31일 기한 전에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입양인들에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STATEMENT OF THE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https://youtu.be/hCSkFi27LmA>

친애하는 진실화해위원회(TRC) 귀하,  
문서의 부재는 증거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제기된 모든 사건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한국 진상규명그룹(NLKRG)은 국가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과 진실화해위원회가 보고한 최초의 56건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며, 한국 국경을 훨씬 넘어서는 사안입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367명의 진실화해위원회 참여자들에 대한 결론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TRC)여, 입증책임은 국가에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자료가 없다는 것이 불법의 증거다

## Gebrek aan documenten = overtreding



노르웨이 한국 입양인 권리 단체 (NKRG) 성명서  
<https://youtu.be/hBx60tzGJTE>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한국 입양인 권리 단체(NKRG)의 대표 비그디스 에크하르트(Vigdis Eckhardt)입니다.

오늘 저는 수년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싸워온 수천 명의 입양인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보십시오.  
비밀과 위조된 서류 뒤에 숨겨진 인생 이야기.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 입양기관에 의해 은폐되고 있는 현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입양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입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TRC)는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존재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철저히 실패한 시스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초기 사례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311**명의 입양인이 자신의 사례가 검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은 평생을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해답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양이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윤리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도적, 국가적 실패의 피해자인 우리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피해자임을 증명하란 말입니까?

기록의 부재 자체가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짐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인권 침해나 헌법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피해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지속되는 불확실성과 제도적 방임의 피해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호소를 공유해 주세요.  
모든 입양 사례에 대해 투명성과 정의를 요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해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어  
앞으로 어떤 아동도, 어떤 부모도  
이러한 부당함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이 불법의 증거다**  
**Manque de documents = Violation**





스웨덴한인입양인네트워크(SKAN) 성명서 <https://youtu.be/qD3aw7cdHRY>

제 이름은 한나 소피아 정 요한손(Hanna Sofia Jeong Johansson)입니다. 저는 1976년에 생후 약 4개월이었을 때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해외입양의 영향을 받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파티마 – 한국에서 입양됨
- 요한 – 파티마의 파트너
- 클라라 리 – 파티마와 요한의 딸 (카메라 뒤)
- 투바 요 – 파티마와 요한의 딸 (카메라 뒤)
- 보니 – 칠레에서 입양됨
- 몰리 – 인도에서 입양됨

우리는 약 3년 전,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군사독재 시절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된 367건의 사례를 접수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대규모 아동 해외입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몇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는지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위원회는 당시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기관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쥐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기관들이 매달 일정 수의 아동을 입양 보내야 했던 압박이 있었으며, 이는 서구 입양 수요가 한국 내 고아 수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자국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모두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역사적인 순간이며, 그 영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입양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보도자료를 기다렸다가 그 내용을 6월에 발표될 예정인 자체 보고서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11개국의 입양인 단체들은 367건의 사례를 접수했습니다. 이 중 56건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스웨덴에서 제출된 22건 중 21건은 스웨덴한인입양인네트워크(SKAN)가 제출한 것이며, 저는 SKAN의 창립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까지 22건 중 1건만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되었고, 나머지 21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에 감사드리지만, 2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367건 중 311건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각 사례는 한 명의 입양인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한국 부모와 형제자매, 파트너, 자녀, 친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42건에 대해 위원회는 인권 침해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367명 모두에게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을 정부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입양인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양 절차를 뒷받침했던 법적 서류는 한국 정부가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입양이 적법했음을 입증할 책임도 한국 당국에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남은 311건의 조사를 완수해 다시는 한국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칠레에서도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형사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은 스웨덴 입양조사위원회는 물론, 노르웨이와 벨기에 등 다른 국가의 조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이곳 스톡홀름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촉구합니다. 모든 367건의 사례를 조사하고,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진정한 화해는 우리 모두가 입양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STATEMENT OF THE FRANCOPHILE KOREAN RIGHTS GROUP (FKRG)

<https://youtu.be/T4VPw0IWS4g>



Adopté.e.s coréen.ne.s francophones politisé.e.s

불어 해외 한국 입양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 불법의 증거다

Lack of Documents = Violation



WE STAND UNITED



STATEMENT OF UNITED STATES KOREAN RIGHTS GROUP (USKRG)  
[https://youtu.be/RCJg2\\_faea8](https://youtu.be/RCJg2_faea8)



STATEMENTS OF DOKADS - DESCENDANTS OF KOREAN ADOPTEES

[https://youtu.be/wAkC\\_q0MB4o](https://youtu.be/wAkC_q0MB4o)

자료가 없다는 것이 불법의 증거다  
Mangel på dokumenter = krænkelse



WE STAND UNITED

